

민주 전북자치도당 청년 당원들 “전북 소외 대광법, 지방소멸 재촉”

“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청년 당원들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만 소외받는 대도시 광역교통법의 차별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성국 전주시의회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신유정 전주시의원, 정대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전 사무국장, 김영철 군산 김계 부안갑 청년위원장, 김성규 전주시의원, 송희수 정읍 고창 청년위원장, 박경태 군산시의원, 전혜성 군산 김계 부안을 청년위원장 등 8명(순회 무순)의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청년 당원들이 함께 모여 힘을 보탰다.

이날 참여한 청년 당원들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국토부는 전북 현안을 배제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전북을 무시한 국토부의 태도는 전주시민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국토부의 전북 경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대도시 광역교통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석한 청년 당원들은 “대광법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이러한 광역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급행버스 체계 등 광역교통시설 투자를 위해 2020년까지 4조2,000억원을 썼으며, 현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통해 7조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토



26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청년 당원들이 “전북만 소외받는 대도시 광역교통법의 차별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김천 간 철도개설 등, 교통소외지역 해소 큰 역할
대학생 교통비 소요 문제 해결 위해 광역버스 도입해야
대광법 개정 통한 광역교통시설 전북에 반드시 필요” 주장**

부는 2025년 이후 약 11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 23조원을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주시와 전북에는 지금까지와 앞으로 대도시 광역교통시설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지역 교통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전북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주~김천

간 철도개설 등이 전북 내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통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전북 내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재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광역버스가 발달한 대도시권의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교통비가 소요되는 등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도 대광법 개

정을 통한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이 전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청년 당원 8명 모두는 한목소리로 “현재의 대도시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급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소외시키는 악법”이라며 국토부는 당장 전북 소외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전북도민의 지역간 활동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는 전북만 소외받는 불합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으로 인해 전북의 청년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가는 현실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히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인 김운덕 국회의원과 이춘석 국회의원도 대광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도 대광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성운 의원은 대광법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처럼 모처럼 만에 여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대광법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여야 협치 차원에서라도 대광법의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의결될지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 도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7점 선정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6일 ‘제1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정책 7점을 선정 발표했다.

우수상은 △전북형 ONE-STOP 청년 귀농·귀촌 마을 형성 지원정책(일반 부문, 고흥민) △신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및 폐열 재활용 방안(학생 부문, 정현목)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전북연구원장(일반 부문), 전북대학교총장(학생 부문) 상장과 상금 각 50만 원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일반 부문에서 △계약학과 여는 전북의 미래: 맞춤형 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태영조) △차별화된 창업 정책 마련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 교육 포인트제’ 운영제안(최용식) △글로벌 K-벽화 아트 예술제(최라환·김선감) △전북형 고령친화 관광산업 개발 및 육성(이가을) △청년 건강 사업(김세라)이 장려상을 수상해 전북연구원장 상장과 상금 각 20만 원이 수여됐다.

아이디어 공모는 생명경제 도시 선도, 전북의 백년 대계 설계, 전북의 성장동력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2개 세부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됐다.

특히, 올해에는 젊은 미래 세대들의 전북발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학생부문을 신설했다.

공모기간 동안 총 27점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일반 부문과 학생 부문의 수상 정책을 선정했다. /이만호 기자

“내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대응 철저히”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강조... 추석 명절 도민 불편 해소 대응 등도 지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간부회의를 통해 “2주년 브리핑 등 도에서 발표한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점검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기회 발전 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기업상속 공제제도 확대되는 내용을 중점기업 등에 안내하여 전북으로 좋은 기업이 이전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라며, “실국장은 정부안에 과소 반영, 미반영된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재부를



설득할 논리 보강을 미리 준비해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부회의에 참석한 출자·출연기관장에게는 지난 20일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면서, 도정 목표 달성과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경영효율화 컨설팅, 임직원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또, 김 지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 “각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는 고물가 안정 대책, 터미널·전통시장 등

안전 점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위문 활동 등을 잘 추진해 도민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에 적극 대응하는 종합대책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실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현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 및 시·군은 물론 출자·출연기관별로 관급자재, 복사 용지 등의 물품 구입 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며, “실국장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장들도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만호 기자

“더 큰 전북으로 가는 길 찾아낼 것”

민주 이성운 의원, ‘농심소심 소통의날’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전주 서부시장에서 국회의원 임기 첫 ‘이성운에게 바란다’ 농심소심 소통의날 행사를 열었다.

‘농심소심 소통의날’은 이성운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 보좌진들이 함께 전주 곳곳의 현장에서 더 큰 전북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소통의 장으로서 서부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제1회 농심소심 소통의 날’은 약 11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서부시장 현대화 방안 △효자동 주민센터 현대화 △은빛공원 재 정비 △우체국 주변도로 확장 △효동2길 골목꽃길 조성 △하수관로 및 노후주택 정비 △파라골6길 열선 설치 △효자동 일대 운동기구 설치와 같은 다양한 방



안들이 논의되는 등 열띤 소통이 이어졌다.

이성운 의원은 “윤석열 용산 정권의 전북 흉대 속에서도 더 큰 전북으로 가는 길을 현장에서 반드시 찾아내겠다”라면서, “민심을 최우선으로 받드는 정치로 더 큰 전북으로 향하는 방안들은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힘 조배숙 의원, 호남동행 국회의원특위 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6일 당 제 187차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조배숙 의원의 ‘호남동행’ 재추진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국민의힘의 의원 확장과 호남 민심 잡기 등 이른바 서진 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www.firefly.or.kr

2024 자유평화시 무주방문의 해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2024. 8/31(토) - 9/8(일)



주최: 무주군
주관: 무주군농수산물채널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